

인성과 학력의 조화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추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지난 6.2 지방선거 때 각직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제 15대 충북도 교육감으로 오른 이기용 교육감이 지난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기용 교육감은 출근에 앞서 일 부 직원들과 함께 시내 사자동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어 한국교원 대를 방문, 도내, 초·중등 교장연수를 받는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경영 리더쉽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충북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래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유와 겸손의 미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아 도내 교육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 교육건설'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취임 당시 "교육이 희망"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큰 꿈을 펼쳐 나갈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마련함은 물론, 도민과 교육가족의 열정을 하나로 결집하여 충북교육의 위상과 자존감을 세우며, 교육사에 길이 빛날 행복한 교육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충북 교육이 그야말로 르네상스시대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그 성과를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기로 했다.

첫째는 충북 체육영재들의 선전



지난 5월말 경남 진주일원에서 열린 제 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서울에 이어 충북이 종합 3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여 충북도민들에

나누기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 개소로 연 2400여 초·중 학생들이 다양한인성 체험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등 따듯

실시하도록통 큰 결정을할때 그 빛을 발휘했다.

도청과 부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협상을 실시했지만,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당초 고수하기로 했던 도교육청의 50:50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수용함으로써 16만 5천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를 지난 3월 개교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산촌 지역학교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아토피 질환을 겪는 초등생들이 치유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원군 문의초 도원분교를 '친환경 전원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건강 캠프 운영, 교육정책 청문관제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 창업소 토크 운영 등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교육활동으로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이 교육감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변화, 창의, 소통, 행복'에서 답을 찾을수 있다. 이 교육감은 2만3천여 교육가족들에게 항상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으라고 강조한다. 그런 다음 나부터 변화하고, 창의를 선도하며, 교육현장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육가족이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교육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쓰라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저는 남은 임기동안 제 15대 충북교육감으로 취임하면 서 발표한 10대 영역 78개 실천과제 선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인성과 학력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가슴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충북 박희상)

글로벌 인재육성에 모든 역량 발휘 할터

취임 1주년 맞은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변화창의, 소통, 행복에서 답을 찾는다 강조

계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는 2009년 4위, 지난해 3위 등 3년 연속 5위 안에 드는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약한 도세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체육시설이 지극히 미흡한 상황에서 일구어낸 이러한 성과는, 타 시·도의 1위나 2위보다도 더욱 의미있고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 교육감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

가슴 따뜻한 인재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학력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선정,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 서현중 김민수의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제 56회 전국과학전람회와 2010 한국 과학창의력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셋째,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사랑의 호도전화

365 운동과 모두 함께 행복한인사

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 교육감은 공교육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위기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지난해 9월 개원하여 전국에 벤치마킹 되고 있다.

넷째, 3선의 교육감 답게 각종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도 단위 종합 2위를 비롯하여 교과부 선정 공직 윤리 평가 전국 최우수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청렴도평가 3년 연속 우수 교육청, 학교급식에 이어, 제 56회 전국과학전람회와 2010 한국 과학창의력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다섯째, 이 교육감이 중요시하고 있는 포용의 행정

전국 최초로 도내 의료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새 얼굴

재경청원군민회통합추진위

윤석민 전 국회의원 추인·선출

이제 재경 청원군민회(향우회)가 양자 체제를 벗어나 단일 체제로의 대통합을 이루게 되어 군민회 발전에 크게 활성화가 될 전망이다.

재경 청원군민회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하오 6시 서울 용산용사의집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총 32명 추진위원 중 24

명이 참석(파반수 성원)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민국회의원을 추인·선출했다.

신임 윤석민 통합회장은 충북 청원출신으로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한 서주 회장, 국민당 부 총재, 자민련 부 총재를 각각 지낸 국내 정계에서도 경험 높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윤석민 회장은 청원군민에 한 사람으로서 종전에 있었던 양분 상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생각하면 전자(조흥연, 이병도)들의 행태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는 청원군향우회가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랑스러운 군민회로 만들도록 전 재경청원군민회원 일동



과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재경 12개 시·군 중 가장 모범이 되는 군민회로 발전·유지 시켜나가겠다고 밝히고 전군민의 화합·단결을 바랐다.

(충북 박희상)

F1경주장 부지 287억원 확정,3.3㎡당 5만1천240원 결정

전남도, 9월30일까지 준공 완료 계획

F1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3㎡(1평)당 5만1천240원으로 결정돼 총인수대금이 28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F1경주장 부지 감정평가액 평가기관이 카보(KAVO·경주장 운영법인)측에 감정평가 금액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부지 가격은 농어촌공사측의 한국감정원과 카보측의 에이원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각각 5만2천562원/3.3㎡, 4만9천918원/3.3㎡를 제시해 양 평가기관간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부지가격이 사실상 확정됐다.

확정된 금액은 양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5만1천240원(3.3㎡당)으로 이에 따른 F1 부지 185만2천㎡(56만평)에 대한 총 인수대금은 287억원이다.

F1경주장 부지는 지난해 6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KAVO간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부지 대금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으로 2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258억원은 1년거치 7년내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F1경주장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을 9월 30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 정영근)

충북버스조합 전무이사에

오명식 부장 자체 승진시켜

충북도 버스운송 사업 조합(이사장 윤태한)은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공석 중인 전무이사에 33년간을 봉직하고 있는 오명식(60) 부장을 자체 승진시키기로 의결했다.

신임 오명식 전무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사의 업무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수

행해 나온 점이 인정되어 윤태한 이사장을 비롯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신망을 얻어왔다.

오 전무이사는 "이사장님을 위시하여 각 업체와의 유대를 돈독히 해나오면서 부족하나마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온 정열을 쏟겠다"고 말했다.

(충북 박희상)

담양에 관광테마파크 들어선다

전남도, (주)담양에코테마파크 등 4개 기업과 235억 투자협약



전라남도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담양에 관광테마파크 사업을유치해 전남중북부권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광지역 기업 투자도 쇄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정기호 영광군수, (주)담양에코테마파크를 비롯한 4개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규모는 105명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주)담양에코테마파크(대표이사 최희준)는 오는 2013년까지 7만㎡의 부지에 150억원을 투자해 담양에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트릭아트(trick art), 장난감박물관(toy museum), 놀이시설 등 인기있는 시설들을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담양지역은 관광위락 기반시설이 부족한 광주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시설과 함께 인근지역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엮어 가족 중심의 복합 레저위락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며 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신산업(주)(대표이사 신희찬)은 영광에 3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토질개량제(팽창 질석, 팽창진주암)를 생산한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팽창질석(Vermiculite)은 화분, 옥상·베란다 재배용 배토로 사용되며 분뇨, 돈·계분, 퇴비 등에 사용, 유기물질을 흡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팽창진주암(Perdite)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크고 통기성·배기성이 뛰어나 작물의 초기활착 촉진, 조경·원예용 상토로 활용된다.

(주)베스트텍코리아(대표이사 김종현)는 본사와 공장을 영광으로 이전, 3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 및 살균 손소독제, 해충 퇴치기뿐만 아니라 기능성 모시 잎을 재배할 수 있는 인삼잎 추출물(사포닌) 함유 농작물 영양제와 친환경 농약 등 지역에 특화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해충퇴치기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다.

(주)드림파이프(대표이사 장미

희)는 25억원을 투자해 영광에 플라스틱 파이프 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플라스틱 파이프 제품은 산업용, 건축용, 농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크다.

소규모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는 투자협약식에서 "관광 테마파크 조성과 친환경 농자재 제조 등 전남이 역점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꼭 필요한 기업들이 오게 되면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갖추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달라"

도와 해당 군에서도 기업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체용 지원과 직원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자협약 체결 기업 4곳 중 3곳이 영광군에 투자하기로 해 최근 대대일반산단에 전기자동차 기업 등이 착공하거나 입주하기로 한데 이어 투자기업이 줄을 잇고 있어 영광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전남 정영근)

군포시,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사업 추진

주 2회 이상 출·퇴근 직원에 대어



군포시는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정비해 재활용하는 '리바이크(re-bike)' 사업을 추진한다.

리바이크 사업은 △도심 흉물로 전락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회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깨끗하게 유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자원재활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시는 지난 5월 노후 파손되어 방치된 자전거 77대를 수거했고, 21일간의 열람 공고 기간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를 분해 재조립하여 45대의 리바이크를 생산했다. 시는 우선 이달 중에 자전거 주 2회 이상 출·퇴근할 수 있는 직원에게 리바이크를 대여할 예정이다. 사후 점검을 통해 월 8회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를 지난 4월부터 오늘 10월까지 월 1회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 김영배)

목포시, 목포대교 개통 대비 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

고가도로 신설 등 대안 타당성 검토 용역 중 목포시가 2012년 4월 목포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진입도로인 고하대로의 교통분산과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확정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목포대교 개통 후 영산강 하구엔 도로와 같이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목포시는 해안가 우회도로로 개설과 고하대로 확장,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가도로 신설 등 여러가지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목포시는 최근(지난 7월 11일) 연산, 원산, 북항동 등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삼진산단 ~ 산정농공단지 ~ 해양경찰서 ~ 북항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최

종 방안을 확정했다.

목포시는 앞으로 최종 선정안(20m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기본설계 및 용역준공(2011. 9) 후 연내에 최종 선정안 실시설계를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연장 1,570m, 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되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고하대로(북항) 일원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목포 김정안)